

**입원 동정**

**◎ 회 장**

- 4.7 : 전기안전관리사 직무교육 개강인사(인천)
- 4.13 : 전기안전관리사 직무교육 개강인사(대전)
- 4.17 : 제주지부 체육대회 참석
- 4.18 : 전기안전관리사 직무교육 개강인사(부산1차)
- 4.21 : 전기안전관리사 직무교육 개강인사(부산2차)
- 4.27 : 전기안전관리사 직무교육 개강인사(경기북)
- 4.27 : 한전 사장 업무협약차 방문면담
- 4.28 : 전기안전공사 이사장 업무협약차 방문면담

**4월중 주요업무 일지**

1	월례조회 및 인사발령
7~9	전기안전관리사 직무교육 (인천)
13~15	" " (대전)
18~23	" " (부산)
27~29	" " (의정부)
30	직원 체육대회(계룡산)

**직원 등산대회 및 자연보호 활동 전개**

협회는 지난 4월30일 토요일,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권용득 회장을 비롯 본부·지부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산에서 직원등산대회 및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 건전한 정신



▲ 계룡산 동학사에서에서의 기념사진

과 육체를 단련하고, 깨끗한 국토 보존운동에 앞장서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됐다.

**무궁화호 우편객차 화재사고 조사**

협회 안전과에서는 지난 4월2일 발생한 무궁화호 우편객차 화재사고를 조사했다.

사고조사반(이원용 서울남동지부장, 최장우 대리)이 4월12일 사고현장에서 조사결과, 전기화재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했다.

조사반에 의하면 우편차 전원계통도와 전기시설물을 검토한 결과, 표준 절연전선의 사용, 냉난방 및 전자개폐기의 접점의 off상태, 전원의 플러그부와 소켓의 두 금속틀 및 부상부분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용점이 657℃인 점, 내

부극간이 흑연절연체로 공고한 점, 휴게실·집무실·화장실의 천장내장판의 재질도 용점이 657℃인 점 등으로 미루어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조사는 우편차량 제작사인 한진중공업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편, 협회 안전과는 매년 증가하는 전기화재의 상당부분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확치 않으면 전기화재로 오인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조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사고조사 및 안전점검**

○태평양 제재소

- 조사일자 : '94. 3. 30(수)
- 원인 : 화재

• 전기설비 : 22.9kV/4,100kW, 380V/750kW

**전기안전관리사 직무교육 이수현황**

지부명	교육기간	이수인원	교육장소
인천	4.7~4.9	410명	부평천주교회 교육관
대전	4.13~4.15	339명	한국자유총연맹 회관
부산	4.18~4.23	728명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
경기북	4.27~4.29	136명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강당

○한양유통

- 장소 : 서울 송파구 잠실동
- 점검일자 : '94. 4. 25(월)
- 전기설비 : 22.9kV/5,800kW, 380V/1,000kW

○해태유통

- 장소 : 서울 강동구 명일동
- 점검일자 : '94. 4. 26(화)

**대구지부**

**전기기술세미나 실시**

대구지부(지부장 : 신동근)는 지난 4월8일 1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기술세미나를 대구시민회관에서 실시했다.

이날 기술세미나는 에너지 Saving Motor(E.S Motor) 원리와 에너지Saving의 효과 및 설치사용법, 옥내용변압기의 향후동향 등의 주제로 현대중공업 임병기 과장과 금성제전 김낙용 과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현장실무위주로 진행,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제주지부 체육대회 줄다리기 ▶

각 1등, 2등 하였고, 대전시청과 전기공사협회가 족구에서 1등과 2등을 차지했다.

**대전지역 전기인 조찬회**

- 일자 : 1994. 4. 20(수)
- 장소 : 피카소호텔3층 소연회실
- 참석자 : 이우정 지부장의 18명
- 간담내용 : 공사협회 업무현황 설명, 전기기사협회 직무교육 등 설명, 강명식부회장의 본부임원 선출에 대한 인사, 서해안 정전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등

**대전지부**

**전기의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

대전지부(지부장 : 이우정)는 4월9일 전기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충남기계공고 운동장에서 개최했다.

본부 강명식 부회장을 비롯 지역 전기관련기관장 등 회원 200여명이 참석, 배구와 족구경기를 펼쳤다.

이날 경기 결과 한전충남지사와 안전공사충남지사가 배구에서 각

**제주지부**

**전기기술인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전기기사협회 제주지부(지부장 : 김성해)는 지난 4월17일 제주 제일고교 운동장에서 전기기술인 단합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본부 권용득



회장을 비롯, 제주지부 고문이신 국회법사위원장 현경대의원과 지역 전기관련 기관장 등 300여명의 전기기술인이 참석, 축구와 줄다리기, 윗날이를 통해 친목도모와 체력향상을 위한 즐거운 하루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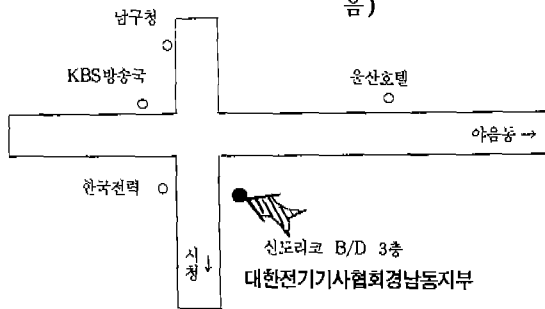
행사에 앞서 본부 권용득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이 행사가 제주지부를 알차게 발전시켜나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 8개팀(전기안전공사, 호텔·은행,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협회, 서귀포·남제주군, 관공서, 한국통신, 전기안전관리팀)이 참가한 체육대회 결과는 전기공사협회

팀이 우승, 한국통신팀이 준우승, 전기공사기사팀이 3등을 차지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지역 전기기술인들을 축제의 마당으로 서로 유대를 강화하는 화합의 장이 되는 계기가 됐다.

• 이전약도 :



### 경 남 동 지 부

#### 사무실 이전안내

- 이전일자 : 1994년 4월25일 (월요일)
- 이전주소 : 경남 울산시 남구 달동 568-17(신도리코빌딩 3층)
- 전화 및 FAX번호 : (052) 71-0770, 65-9686(중전과 같음)

## 파랑새



손으로 잡기는 어렵되 그래도 추구해 보는 '행복'을 상징하는 이 말은, 1911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벨기에의 극작가 모리스 메테르링크(Maurice Maeterlinck)의 동명의 작품에서 나왔다. 1908년에 씌어진 '파랑새(L'oiseau bleu)'는 그의 대표작이라고도 할 만큼 대단히 아름답고 동화적인 동화극이다.

가난한 나무꾼의 아들 치르치르와 딸 미치르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같은 꿈을 꾀다. 두 남매는 병든 소녀를 고쳐주기 위해 파랑새를 구하러 나선다. 그 소녀의 어머니는 선녀였는데, 그녀가 빌려준 마법의 모자가 지닌 능력으로 둘을 꿈의 나라, 추억의 나라, 밤의 나라, 행복의 나라, 미래의 나라들을 찾아 다니면서 온갖 경험과 모험을 겪지만 끝내 파랑새를 구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돌아와보니 집에서 키우던 새가 바로 파랑새더라는 즐거리이다.

이 작품이 전세계에서 읽히면서부터 '파랑새'하면 '해매며 찾아다니는 행복'을 뜻하게 되었는데, 이외에도 '행복은 손에 넣기 어렵다'거나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와 같은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뿌리내리지 못하고 늘 방황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파랑새 증후군(blue bird Wyndrome)'이라 부를 만큼 보편적인 단어이기도 하다.